

Frankfurter BuchMesse 2003

지구촌의 가장 지적인 장, 책과 사람의 만남 -
책과. 정보의. 만남.

*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국제도서전 * 55회를 맞은 이번 도서전에서는 102개국 6,600여 출판사가 7만여 종의 신간을 포함 33만 6천 종의 책을 전시, 저작권 관계자·에이전시 회사들과 활발한 상담을 벌였다 *



2005년 주빈국으로 선정된 한국 국가관. 기동형 타워를 설치, 많은 관심을 끌었다.

프랑크푸르트=취재·사진 임동현 기자



전세계 출판문화인들의 교류의 장인 2003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FRANKFURTER BUCHMESSE)이 지난 10월 8일~1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렸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15세기 초 독일출판인들과 서적상협회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하기 시작한 이후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국제도서전. 55회를 맞은 이번 도서전에서는 102개국 6,600여 출판사가 7만여 종의 신간을 포함 33만 6천 종의 책을

전시, 저작권 관계자·에이전시 회사들과 활발한 상담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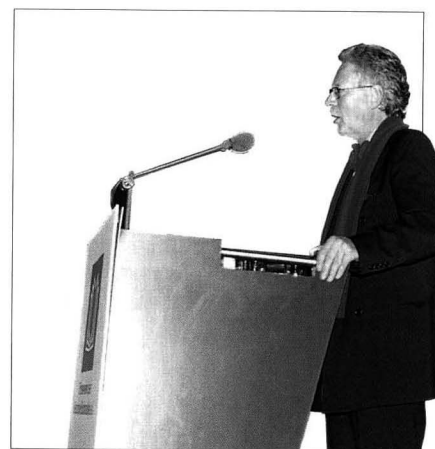
이번 도서전은 전체 전시도서가 2002년의 33만 4천여 종보다 줄어들었으나 주최측과 참가 출판사들이 도서전의 활기를 위해 영화상영을 비롯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는 데 적극 나서 지난해보다 더 활력 있는 전시회가 됐다는 게 중평이다. 도서전 기간 중 한국은 520여 건, 610만 달러 규모의 저작권 상담을 벌였으며 이 중 115건, 115만 달러의 계약이 성사



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계약액은 8,90만 달러를 예상했던 전문가들의 전망을 뛰어넘은 것이다.

한편 7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폴커 노이만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페트라 로프 프랑크푸르트 시장, 크리스티나 바이스 독일 문화부장관, 디터 쇼만 독일 출판서적상연합회장, 바이덴 펠트 유럽-러시아-미국 3자 정책연구소장, 갈리나 카렐로바 러시아 부총리 서리, 블라디미르 러시아 작가, 이정일 대한출판문

화협회장 등 각국의 출판문화계 인사 3백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 폴커 노이만 조직위원장은 "이번 도서전에 참가한 출판사가 6천 곳이 넘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9·11 테러 이후 주춤했던 참가열기에 조바심을 냈음을 시인한 후 영화상영과 텔레비전 포럼관, 번역가 센터 설치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으므로 더욱 의미 있는 도서전이 될 것이라고 자부심을 피력했다. 실제로 조직위원회는 예년과 달리 일반 관람객의 출입



개막을 선포하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는 디터 쇼만 독일 출판서적상연합회장.



'New Page'를 주제로 내세운 러시아는 주빈국관에 러시아 역사와 오늘을 콘텐츠화한 멀티미디어 카페를 운영해 전시공간을 효과적으로 운영했고 종이로 만든 러시아 건축 이미지를 전시했다.

을 하루 늘려 10일부터 허용함으로써 도서전의 활기를 되찾는 데 고심해 왔음을 보여줬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2003년 주빈국(Guest Of Honours)인 러시아 인사들이 인상적인 연설을 해 감흥을 자아냈다. 러시아 부총리 서리 갈리나 카렐로바는 '개막일이 마침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생일 이라면서 그를 대신해 개막을 축하한다고 말해 박수를 끌어낸 뒤 이번 도서전이 독일과 러시아 문화교류의 획기적인 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수학자 영화 제작자 출신으로 푸시킨문학상과 러시아 문학상을 연이어 받은 소설가 블라디미르 마카닌은 이날 연사 중 유일하게 노타이 차림으로 등장. "이제 세계의 문화는 기성세대의 시각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세대가 빛어내는 문화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고쳐하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그

들의 문화는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이며, 새로운 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New Page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크리스티나 바이스 독일 문화 부장관은 이례적으로 러시아의 범죄, 부패, 인권 문제를 거론한 후 '러시아가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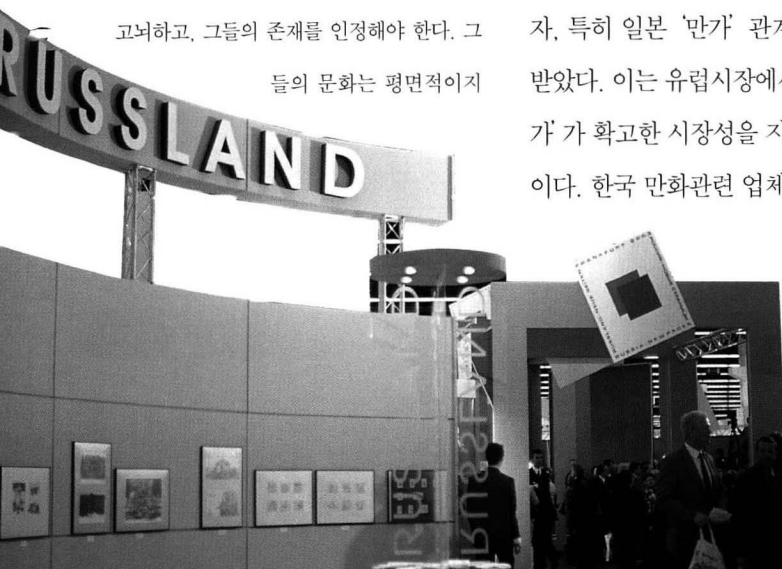
이번 도서전에서 한국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운영하는 한국관에 책세상 문화과지성 대훈문고 계림닷컴 등 직원과견출판사 15개사, 위탁운영 출판사 64개사가 부스를 마련 저작권 상담과 홍보활동을 벌였고, 교원 웅진닷컴 등 4개사가 독립 부스를 마련 활동을 벌였다. 또한 한국 문화콘텐츠진흥원과 서울문화사 시공사 학산문화사 등 23개의 만화출판-게임업체는 'MANHWA'를 브랜드로 내걸고 돋보이는 만화관을 운영해 국내외 관계자, 특히 일본 '만가'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유럽시장에서는 일본의 '만가'가 확고한 시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만화관련 업체는 이번 도서전



에서 192만 달러어치를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도서전에는 1백7만여 명이 입장했다고 조직위측은 밝혔다. 2002년 대비 2003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요 통계는 아래와 같다. [표]

개별참가사	2003년	2002년
독일	2,735	2,140
해외	3,876	4,248
전체	6,611	6,388
단체참가사	1,352	764
도서전 참가국가	102	111
국가관	64	69
전시도서 종수	336,253	334,474
신간도서	74,147	81,227
전시공간(m ²)	171,717	174,124



러시아 국가관은 주빈국관보다 역동적인 전시 패턴을 보여 주빈국관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